

어린이 책꽂이

▲악자지컬 정글놀이터=눈으로 보고 들으며 다양한 말것들과 동물들을 익히는 팝업북, 책장을 펼치면 생생한 소리와 이야기가 펼쳐져 아이들에게 흥미를 준다.



〈아이즐북스·1만5천500원〉

▲돈키호테=세익스피어와 함께 서양 고전문학계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세르반테스의 대표적인 소설이다. 자유와 희망을 향해 내달리는 방랑기사, 돈키호테의 재미있는 모험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파란리전가·9천800원〉

▲은하철도 999의 기적=교사인 작가가 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일본의 대표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와 접목시킨 동화. 동화속에서 축구경기 도중 쓰러져 오랜 투병생활을 하는 주인공 아빠의 이야기는 전 롯데 자이언츠 포수 임수혁 선수가 모델이다.



〈시공주니어·7천원〉

▲남남씨 가족이 날씬해졌어요=인스턴트 음식만을 선호하는 남남씨 가족이 나들이를 갔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고장나는 바람에 엉겁결에 농부네 집에 머물게 되면서 채식을 통해 생활방식을 바꾼다는 이야기다. 건강한 식습관이 왜 우리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 생각하게 한다.



〈달리·9천원〉

▲호랑이 뱃속잔치=호랑이에게 통째로 잡아 먹힌 세 사람이 호랑이 뱃속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렸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지만 책을 덮고 나면 저절로 피식 웃게 되는 유야를 위한 그림책이다.



〈사계절·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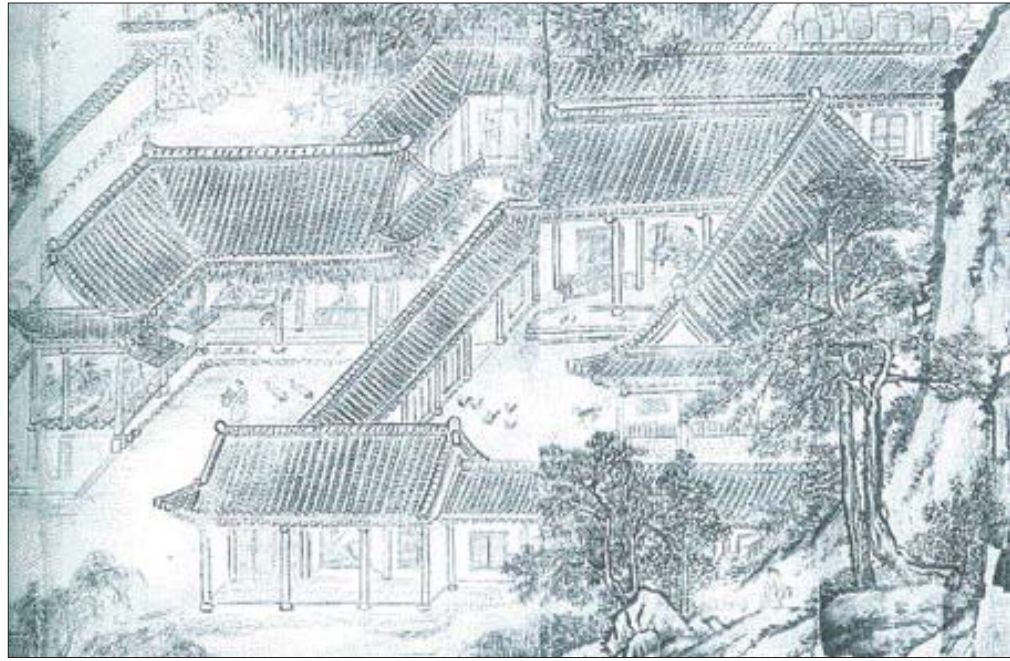
조선시대 사랑채는 '공적 영역'이었다

우리가 살아온 집, 우리가 살아갈 집 서윤영 지음



“엄마, 사랑방에 큰 삼촌이 아저씨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사랑채에 있는데” “한방에 둘이 있니?” “장지문 담구 외삼촌은 아랫방에 계시구, 그 아저씨는 윗방에 계시구 그러지” <주요섭의 소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중> 수많은 책과 영화, TV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사랑채는 오랜 기간 '금녀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두 칸짜리 방을 아래 위로 나누는 장지문은 공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치였다. '주거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택 형식과 부속물들은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공리·2003) 등 건축 관련 저서를 집필해온 건축 전문가 서윤영씨가 펴낸 '우리가 살아온 집, 우리가 살아갈 집'은 선사시대 움집부터 오늘날의 초고층 아파트까지 우리나라 주거 건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기 쉽게 풀어쓴 건축 교양서다. 저자는 이야기의 주된 소재는 조선후기에서 가져왔지만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논의를 확장시키며 읽는 재미를 전해준다. 또 우리나라 사체에 머물지 않고 영국과 독일 등 세계 각국의 주거 문화까지 함께 아우르며 독자들이 그 양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가 조선 후기에 주목한 이유는 대동법의 실시 등으로 화폐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심서비스업, 도상공업이 번성하면서 '주거 건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시대 건축의 큰 특징인 사랑채의 경우 '남녀 차별의 공간'이라고 보다는 주택 안에 존재했던 '공적 영역'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은 당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인 사랑채에 나올 일이 없어 여성 차별이 아닌, 공과 사의 구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과거의 모습이 현재 어떻게 재현되는지도 주목한다. 일부 양반 집안이 소위 '그들만의 소왕국'을 꾸렸던 씨족마을의 폐쇄적 형태는 현대의 아파트나 고급 주택가에서 그대로 발현된다. 보통 씨족마을의 앞부분에 노비의 집이 있고, 그 다음으로 타성바지, 본성바지 집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내에도 각 세대는 평형에 따라 세심하게 배치된다. 종대형 평형은 향(向)과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 잡는 건 당연지사다.



조선시대 사랑채는 남성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김홍도의 '삼공불환도'를 살펴보면 사랑채에서는 남자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고, 안채에서는 여성이 길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책은 또 '일(-)자 형'의 초기삼간 형태인 흙집이 '묘자형'의 겹집으로 진화한 흔적은 오늘날 아파트의 동선구조에서 그대로 표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화폐유통 등으로 상업중심지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객주, 여가 등 새로운 상업 건물도 소개한다. 대부분의 건축 관련 서적들이 화려한 사진 등이 담긴 '답사서' 형태인데 반해 이 책은 실학자들이 남긴 '북학의' '임원경제지' 등 건축 관련서적과 다양한 문학작품 등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연구서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연구서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풍부한 사례와 쉬운 글쓰기로 책은 재미있게 읽힌다.

〈역사비평사·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존 브룩만 '위험한 생각들'

가장 최근에 간행된 신간으로 나의 관심을 끈 두 권의 책은 존 브룩만의 '위험한 생각들'(캘리온)과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었다. 두 권의 책이 모두 학문 분야의 것들이니 소설가라는 나의 직함을 해아려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설을 쓴다고 해서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는 건 그야말로 '우물만 개구리'식 독법이 아닐 수 없으리라.

나는 소설을 쓰지만 과학 분야의 서적에 특히 관심이 많다. 아주 오래 전부터 천체 물리학을 비롯하여 뇌과학 인지과학 영역의 책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존 브룩만의 '위험한 생각들'과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은 출간과 동시에 단박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기적 유전자'와 '예전의 강' 등으로 이미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 저자가 되어버린 리처드 도킨스는 존 브룩만이 기획한 '위험한 생각들'에도 필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위험한 생각'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위험한 생각들'을 기획 연출한 존 브룩만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석학들이 학문적 견해와 성과를 토론했기 위해 모여드는 엣지재단(Edge Foundation, Inc.)의 회장이자 웹사이트 포럼 엣지(www.edge.org)와 리얼리티 클럽(The Reality Club)의 회장이다. 세계의 학계와 문화계는 그를 '이 시대 최고

나의 위험한 생각은 무엇인가



의 지식 전도자'로 평가한다. 존 브룩만이 이번에 기획한 '위험한 생각들'은 당대 석학 110명으로 하여금 '아직 결론내지 않은 민감한 주장들'을 펼쳐놓게 한 책이다. 그것을 위해 석학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현재의 도덕과 가치에 반(反)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110명 석학들의 대답은 예상대로 백화제방(百花齊放)을 방불케 한다. 예를 들어 리처드 도킨스는 "법피자가 아니라 그의 유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폴 데이비스는 "지구 온난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베리아를 새로운 곡창지대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위험한 생각들'에 동참한 석학들은 대체로 인간의 뇌, 우주, 영혼, 신, 외계 생명체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지만 그들이 과학자이고 이론과 증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인지라 그들의 '위험한 생각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혀 위험하지 않고 지극히 조심스런 생각들로 읽힌다. 그들은 여전히 아이슈타인과 다윈과 프로이트의 후계자로 머물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위험한 생각에 관해서는 경함과 직관과 지혜 같은 것에도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난 찬사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동안 답답하고 아쉬운 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위험한 생각들'을 읽고 나면 자기 화두 하나는 분명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나의 위험한 생각은 무엇인가?"하는 걸 되짚어보게 만드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책을 읽는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위험한 생각들'을 교환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는 것이라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위험한 생각과 너의 위험한 생각, 그것들이 서로 화합하여 인간과 인생, 나아가 지구적인 삶의 조건들에 대해 더 큰 이해를 얻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우 <소설가>



칼날같은 풍자로 부시정부 비판

나라 없는 사람 커트 보네거트 지음



"어떤 주제라도 웃음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의 희생자들 사이에도 아주 소름끼치는 웃음이 있었으리라." (13쪽) 미국 최고의 풍자가가 지은 소설가인 커트 보네거트(1922~2007)의 에세이집 '나라 없는 사람'이 번역·출간됐다. 미국에서는 2005년에 나왔다. 미국 잡지 '인디스타임즈(In These Times)'에 5년 동안 연재했던 글을 모았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세상을 뜨기 직전인 올 초까지도 계속됐던 저자의 부시 정부와 그들이 편 정권에 대한 칼날같은 풍자가 날카롭게 표현돼 있다. '가난한 사람도 종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신발 폭탄이 두려워 공황에서 알몸 수색을 당하는 나라'라는 말로 현재의 미국을 비판한 저자의 재치가 우습고도 진중하다. 촛불살인의 글들을 직접 쓴 도란 2점이 함께 실었다. <문학동네·9천5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살면서 느낀 아름다운 것들

일요일의 마음 이남호 지음



문학평론가인 이남호 고려대 교수가 '아름다움'을 주제로 에세이를 썼다. '일요일의 마음'은 저자가 살면서 느낀 아름다움에 대해 쓴 26편의 글을 묶은 책이다.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는 책의 마지막장까지 일관되지만 미방 서정주의 시 등 문학 작품은 물론,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서 글렌 굴드의 음악까지 영감을 얻는 매개는 경계를 넘나든다. 저자는 일요일을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장 순일한 시간공간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일요일의 마음'을 갖고 시, 그림, 음악 등과 조우하며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찾는다. 저자는 "세상에는 세상일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눈이 밝아지면 만나게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며 "그것은 들꽃 한 송이일 수도 있고, 김월하의 시조창일 수도 있고, 어느 시골집 돌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생각의나무·1만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Furumin' (마음주사 후루민) featuring a red stamp and website URL http://cafe.daum.net/furumi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servic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text: '당신을 고품격 최상의 VIP로 모십니다'.